



제10회 '바다의 날' 행사 해양축제로 승화 본 기념행사는 5월31일 울산에서 개최 전국요트대회, 음악회, 마라톤대회 등

5월31일 제10회 '바다의 날' 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바다의 날' 본 행사는 이날 울산에서 개최되어 해양·수산 유공자들에 대한 훈포상이 수여된다.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진취적인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난 1996년 5월 제정된 '바다의 날' 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설치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면서 범국민적인 해양축제로 승화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개최지는 기념식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데, 이번 제10회 행사지역으로 울산시가 선정된 것은 울산시에서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의, 고래축제 등이 개최됨을 고려, '바다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이와함께 울산 지역경제에 약 40% 정도 영향을 미치는 항만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지향함은 물론, 그동안 동해지역에서는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해양수산부는 금번 '바다의 날' 행사는 바다의 날 10년과 해양강국 1000년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바다를 통한 도전과 해양강국의 비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또 서울에서는 장보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부산에서는 해양과학기술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행사를 내실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참여하기

쉬운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학술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전직원은 또 5월중에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제10회 바다의 날 행사의 의를 제고하고, 소아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및 헌혈증 지원을 통해 소아암 환자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부담 경감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헌혈행사를 비롯하여 바다의 날 완치기원 '소망바다' 모금함 마련, 소아암 어린이 돕기 수산물 바자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바다의 날' 을 기념하는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는 '바다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바다주간인 5월20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해양수산부의 후원으로 제1회 한국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를 개최한다.

또,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5월30일 한강 뚝섬 독도 선착장 2층 연회장에서 제2회 대한민국해양환경대상 시상식을 갖는다.

그리고, 한국해운신문은 5월29일 일요일 오전 8시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제10회 '바다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이밖에도 제10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자동차로 떠나는 남해안 어촌 관광축제, 디카 디카 사진전, 마라도 등대 타임캡슐 행사, 뮤지컬 '장보고' 국립해양조사원의 '바다의 날 온라인이벤트' 퀴즈 및 퍼즐 이벤트, 바다사랑 음악회 등이 펼쳐진다.